

실현 가능한
'생활사' 로서의 코뮌,
코뮌놀이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
고길섭 지음 | 알피 | 350쪽 | 값 13,500원



경찰계엄, 민란, 등교거부, 182일 동안의 촛불집회, 부상자 600여 명, 구속자 42명...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핵폐기장 건립문제를 둘러싸고 부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부안 주민의 승리로 끝났지만 군수와 부안군의 '군정정권' 과 반핵부안대책위 중심의 '주민권력' 이 적대적 긴장관계를 형성한 '전쟁터' 부안은 그만큼 치열했다.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는 한 명의 주민으로서 그 한가운데 있었던 문화비평가 고길섭 씨가 당시 부안에서 있었던 일을 '코뮌놀이' 라는 새로운 해석을 통해 소개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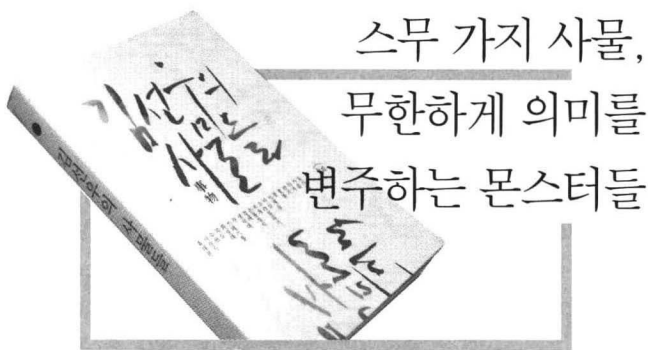
2002년 '자발적 백수' 로서 고향 부안에 내려온 저자는 '운 좋게' 부안항쟁에 하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고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에서부터 부안군청 앞 촛불시위 현장까지 투쟁의 한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코뮌놀이' 로서의 부안이다.

"부안의 투쟁은 감동이었습니다. 때로는 피로 범벅되고, 때로는 깔갈거리는 축제의 장으로 질기게 이어지면서 마침내 '승리' 를 이끌어냈습니다."

저자가 부안의 투쟁을 단순히 코뮌이 아닌 '코뮌놀이'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승리가 주민대중들의 즐거운 투쟁의 열정과 활력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적 주체성의 새로운 형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코뮌은 민중권력으로 완결된 정치적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해방의 놀이과정으로서, 대안적 삶을 지향하며 새로운 주체성을 집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문화정치적 공생체" 라고 말한다. 코뮌놀이는 유토피아적으로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투쟁에서 상상되고 획득되는 '생활사' 라는 것이다.

신동섭 기자



스무 가지 사물,
무한하게 의미를
변주하는 몬스터들

《김선우의 사물들》
김선우 지음 | 놀와 | 228쪽 | 값 9,000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며, 시인 김춘수는 일찍이 명명(命名)의 가치를 시적으로 밝혀 보인 바 있다.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도화 아래 잠들다》 두 권의 시집으로 평단과 독자의 사랑을 두루 받은 김선우 시인이 두 번째 산문집 《김선우의 사물들》을 냈다. 손가락, 거울, 의자, 반지, 촛불, 부채, 손톱깎이 등 모두 스무 가지의 사물을 새롭게 명명하는 저자의 사유가 참으로 맛깔스럽다.

저자는 '거울' 을 "자기 자신을 알아보게 될 때 죽게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로 명명한다. 연못 수면에 비친 모습이 자신인 줄 모르고 사랑하게 되고, 급기야 연못에 몸을 빠뜨려 죽게 되는 나르키소스. 오늘 나르키소스는 자아 도취적인 자기애로 상징되지만, 저자는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해 죽음을 치러내야 했던 비극의 인물"로 다시 고쳐 부른다.

"월경에 대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생명의 근원에 대한 사유를 촉구하는" '생리대' 에 관한 저자의 사유가 반짝거린다. 저자는 "그것이 더러운가? 그 붉은 핏빛으로부터 목숨을 얻어 우리는 세상에 온다"라고 하며 "여성 성기와 나팔관, 난소, 난관, 자궁에 직결되며 젖기슴의 아주 세밀한 부분인 젖꼭판의 돌기 하나 하나에까지 연관되어 있는 총체적인 몸의 말"이 '월경' 이라고 들려준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스무 가지 사물들, 그것의 안쪽에 숨은 또 다른 의미를 만나는 즐거움은 기대 이상이다. 체 할 일에 그저 충실하기만한 재미라고는 없는 사물들이라고? 김선우 시인으로 인해 사물들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저것에서 그것으로 무한히 몸을 바꾸는 몬스터로 직립했다.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더했다는 건 보증수표의 의미. 일상이 무기력하거나 재미없어진 독자들에게 '버라이어티 특급 사물 판타지' 로 명명될 만한 책의 일독을 권한다.

박용두 기자

문학, 너는 사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노블 앤 뽀또그래피》

진동선 지음 | 시공아트 | 216쪽 | 값 10,000원



사진평론가 진동선 씨의 《노블 앤 뽀또그래피》는 소설을 읽음에 '사진'이란 도구를 활용한다. 재기발랄한 신현림, 마이크로 묘사의 달인 하성란, 역사의 증인 조세희, 이청준 등 20명의 우리 작가가 자신의 문학 속에서 어떻게 사진을 정의하고 바라보는가를 훑쳐보는 매우 색다른 소설 읽기다.

시간에 저항하는 매체란 이유로 사진을 단순히 추억의 도구로만 여기겠거니 추측한다면 놀랄 거리들이 많다. “추억은 다르게 읽힌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소설가들이 곱씹는 추억은 스무 개 빛을 내뿜는다. 스무 명 작가들 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사진의 의미를 곱씹는 진씨의 문장은 담백하고 차분하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안도현은 독특하게도 내가 없는 사진을 펼쳐놓고 ‘나’를 찾는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비롯된 ‘나’보다 먼저 존재했던 ‘나’라니? 그런 내가 존재하는 곳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사진 속이다. 진씨는 안도현의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그에게 있어 사진을 바라보는 일은 곧 존재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됨을 알아차린다. 한편 사진을 향한 구효서의 시선은 비교적 감상적이다. “너무도 차마 밟혀 열른 돌아오지 못하고 오래도록 카페 창 밖으로 저수지 물빛을 바라보던 시간들”이라며 ‘영원’을 약속한 징표로 사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제 빛을 낸다지만 공통분모가 없는 건 아니다. 문학과 사진은 언제나 죽음, 부재, 결핍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진씨의 설명처럼 작가들의 사진이야기 역시 대체로 기억, 기록, 망각, 시간, 존재, 부재 등의 개념을 형상화한다. 실제로 사진은 기본적으로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눈이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문학작품들과 비슷한 감성의 사진들을 곁에 소개해 소위 “읽고 보고 느끼는” 예쁜 책을 완성했다. 나이, 작법, 작품색이 각기 다른 스무 명 작가들의 작품을 고루 읽어내고 각기 다른 이해를 시도한 점에서 사진평론가 진씨의 해석력을 특히 칭찬하고 싶다.

김청연 기자

산을 즐기는 특별한 법칙 하나!



《세계질 꽃산행》

현진오 지음 | 궁리 | 412쪽 | 값 22,000원



여행서적이 붓물처럼 쏟아지던 여름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남도, 이탈리아, 숲 찾아가기 등 특정 지역을 선정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테마별 여행지를 소개한 책들이 많았고 주5일제 확대 실시를 반영해 주말 동안 근교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을 정리한 책도 있었다. 그에 비해 《세계질 꽃산행》의 저자는 조금 특별한 산행을 제안한다. 그 이름도 ‘꽃산행’이다.

저자인 현진오 씨는 동북아식물연구소(www.korea.nplant.info)를 운영하면서, 우리 꽃을 보기 위해 자생지를 찾아가는 ‘꽃산행’이란 모임을 시작했다. 꽃산행이란 말도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생태계 관련 인터넷 동호인 모임 어디서나 즐겨 쓰는 새로운 용어로 정착됐다. “산을 찾는 사람들이 산에서 무작정 걸으며 자연을 즐기는 것 이외에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등산을 하며 식물에 대해 배워서 우리 생태계를 더욱 깊이 알고, 이들의 보존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저자의 뜻에서 꽃산행이 시작됐다.

책은 ‘산따라 가는 길’과 ‘꽃따라 가는 길’로 장을 나누어 앞에서는 점봉산, 동강, 북한산, 첨마산 등 20곳의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꽃들을, 후반부에서는 변산바람꽃, 미선나무, 한라송이풀 등 꽃이 중심이 된 산행코스를 소개한다. 한편 저자는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꽃을 보러 가는 인원은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꽃을 촬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때는 5~7명 정도, 관찰만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안한다. 출발 전 대상지에 대한 자료 조사와 초원, 들판, 숲속 등 계절마다 추천하는 산행지를 따로 두어 꽃산행을 떠나는 구체적인 방법도 담았다.

최근 생태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꽃산행은 엄밀한 의미의 생태관광에 대한 하나의 모범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저자의 발품으로 찍은 400여 컷의 꽃사진으로나마 ‘모의 꽃산행’을 시도해 보기를 권유한다.

홍이현 기자